

“천년손천의 찬란한 문화 · 자랑스런 우리고장”

아산타이딩

第 8 號

A-san of Tidings



온양문화원 院訓 : 博文約禮 널리 학식을 쌓아서 사리에 밝고 예절을 잘 지킴

■ 문화원이 하는 일

- | | |
|-----------------------------------|-------------------------------|
|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
| 2.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및 보존 |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
|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 8.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온 양 문 화 원

우 336-012 충남 아산시 온천2동 206-24번지
TEL:(041)545-2222 FAX:(041)542-4444
홈페이지:www.cult21.or.kr E-mail:Onyangcc2@hanmail.net

온양온천역

- 흥 병 선 -

무심코 지나치다가 마주치는 반가움
제 이름 모두 버리고 세속 따라 나섰는데
향수를
안은 너만이
그 마음을 알아준다.

세상이 변한다고
근본까지 버릴수야

과거를 찾는 사람들 누가 나서 맞이할까

기적도
우렁차구나
그리웠던 온양온천역



아산타이딩

2008년 겨울호 통권 제8호
발행일 2009년 1월 22일
편집인 이 충 경
발행인 김 시 검
발행처

온양문화원

충남 아산시 온천2동 206-24
전화 545-2222, 548-8848
팩스 542-4444

이메일 onyangcc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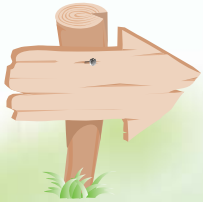
편집 · 인쇄

중앙인쇄사

충남 아산시 온천동 1804
전화 544-9943
팩스 544-9948

C ° O ° N ° T ° E ° N ° T ° S

3	강좌신설(이주여성다문화, 디지털카메라)
4	따뜻한 이야기(유품기증, 노인위안잔치)
5	성황이룬 문화가족 송년의 밤
6	아산시정소식 1
7	아산시정소식 2
8	학교 소식 1
9	학교 소식 2
10	기관단체소식
11	지역인사동향
13	향우회 소식
14	우리지역 지명유래(법곡동)
15	잊혀져 가는 이야기(천낙관과 온양극장)
18	사진으로 다시보는 회원작품 전시회
20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22	신간(역주, 외암이간의 철학과 삶)



강\좌\신\설



다문화 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3시(중급), 오후1시~3시(초급) 운영한다. 강사는 현재 선문대학교 외래 강사로 있는 장미숙 교수가 진행한다.

‘이주여성 다문화 교실’ 개강 한국어 및 한국문화 체험 교육

온양문화원이 13번째 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실을 운영한다.

12월 5일(금) 지역내 결혼이주여성 20명이 참석, 다문화 교실 개강식을 갖고 교육에 들어갔다.

다문화교실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생활을 익히도록 한국문화 체험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디지털 카메라 교실’ 개강 카메라의 기능과 체험, ucc까지 배운다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을 완전히 익히고 촬영기술을 배우는 디지털 카메라 교실이 12월 20일(토) 개강했다.

카메라 교실은 개강하기 이전부터 수강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강을 기다리던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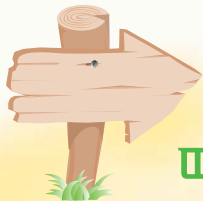
15명으로 시작한 카메라교실은 이론수업과 병행하여 아산지역의 명소 및 유적지 등을 찾아 야외촬영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UCC제작 기법도 배우게 된다. 강사는 아이엠미디어 대표이며 순천향대 평생교육원 강사인 김대열씨가 진행한다.



“입추에서 소설까지” 평생학습 특강 개강 예비 수강생 대상, 프로그램별 일일특강 실시

온양문화원이 12월 10일(월)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입추에서 소설까지”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문화원이 강좌 신설을 앞두고 예비수강생들에게 현재 문화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씩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강좌 회원 활성화를 위하여 총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실시해 왔다. 특강에는 칠보공예 이미선 강사를 비롯하여 7개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참여했다.



따뜻한 이야기



문화탐방 회원 박종혁씨, 유품 기증

사별한 부인 유품 놋대야 등 3종

온양문화원 문화탐방 회원인 박종혁씨는 부인의 유품인 놋대야, 화로등 3점을 온양문화원에 기증했다. 박씨는 효문화탐방을 위하여 문화원에 친구들과 내원하여 업무를 마치고 가던 중 향토사료관에 전시된 조상들의 생활 민속품을 관람하고서 사별한 부인의 유품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기증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오래 전 부인과 사별하고 부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금은 찾기 귀한 물건인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마침 문화원 향토사료관에 전시된 민속생활품들을 보고 기증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시점 원장은 “기증해 주신 유품은 잘 보관 관리해 후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토사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억 살린 따뜻한 공연...노인위안잔치

온양문화원 충청연예인 봉사회와 손잡고



아산지역의 문화소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위안잔치’가 12월 8일(월) 온양문화원에서 충청연예인 봉사회 주관으로 열려 250여명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코메디언 방일수씨의 사회로 왕년의 인기가수 박진, 마도로스 차 등이 출연하여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가시나요” 등 과거의 인기곡을 선사해 노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고, 신인장돌풍의 모노드라마가 이어져 2시간 진행되는 동안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연예인 봉사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어르신 안내에서부터 공연까지 술선수범하여 봉사를 실시했다.

충청연예인 봉사회는 2000년 12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돕기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매년 어려운 이웃과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위안공연을 베풀어 오고 있는 단체로 이번 행사는 아산지역의 노인들이 추억을 회상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천연생활염색 강사 및

회원 충남산업디자인전에서 입상

온양문화원 천연생활염색 이미선강사가 지난 11월 ‘2008년 충남산업디자인전’에서 특선과 ‘구미정수미술대전’에서 입상을 하였다. 또한 회원인 이윤영씨는 충남산업디자인전에 처음으로 출품하여 입선을 차지하며 솜씨를 인정받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에 몰두하는 천연생활염색 팀들은 이번 상을 수상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미 선
충남산업디자인전 특선



이 윤 영▶
충남산업디자인전 입선

성황 이룬 ‘문화가족 송년의 밤’

250여명 참석, 장기자랑과 푸짐한 경품으로 위로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를 아쉬워하며 12월 31일(수) 오후 염치읍 방현리에 있는 방수마을에서 문화원가족 송년회를 개최했다.

문화원 식구들이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조촐하게 마련하였으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5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송년회에서는 1년간 문화원발전에 공을 세운 회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감사장은 강사 부문에 김공녀, 짚풀공예부문에 강정희, 산우회 부문에는 정진학, 수강생부문에는 장명순, 문화탐방에서는 강태호를 선정하여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2부 행사에서는 온양문화원의 김환주 이사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장기자랑에서는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펼쳐 1등에 최순범(문화탐방), 2등에는 이대연(여성발전연구소), 3등은 유경란(여성발전연구소), 장려상은 김희열(산우회), 서옥방(이주여성다문화교실)씨가 각각 선정되어 이사회에서 기증한 가전제품류를 부상으로 받게 되었다.

또한 회원들과 강사, 이사들의 후원으로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행운권추첨을 통해 회원들에게 기쁨을 배가시켰다.

이날 행사를 통하여 문화가족들은 하루하루의 문화 활동이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를 바라며 지역 문화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다짐하며 행복하게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건강과 행운이 문화원식구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내년은 더 알차고 뜻 깊은 나날이 되기를 바라보며 밖에 내리는 흰 눈과 함께 소복이 우리의 꿈이 쌓여가는 송년의 밤이 되었다.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2010년 완공

천문대, 영상교육실, 공연장 등 다목적 복합기능 수행



아산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들을 위한 종합 공간인 청소년 교육문화 회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지난 10월 28일 아산시 권곡동 청소년 교육문화 회관 부지 내에서 개최했다.

권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청소년 교육문화 회관은 교육과 체육 및 여가활 동의 공간으로서 다목적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21C형 청소년 교육문화회 관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2년간의 건설기간을 거쳐 2010년 상반기에 그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총사업비 199억원으로 71,952㎡부지에 연면적 7,251㎡로 지하1층 지상 3층의 시설규모로 청소년 문화관과 실내체육관 및 대집회장이 들어선다.

청소년 문화관에는 도서관, 동아리실, 전통예절 교육실, 방과후 아카데미 실, 국제문화실, 생활어학실, 잠재력 테스트실 등 학교외적인 부분에서 청 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영상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영상실과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도 설치하 는 등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문화 회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산시 장애인 콜 택시 출범

- ① 이용대상 : 이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뇌병변 3급 장애인
- ② 이용요금 : 기본요금 2km에 700원, 거리요금 257m에 100원, 시간요금은 62초당 100원
- ③ 신청 및 문의 : 아산장애인연합회로 전화(041-546-1503) 또는 방문 신청

U-아산 모바일 행정 서비스 실시 손 안에 아산시 정보가 가득!

아산시는 1인 1모바일 시대에 맞추어 시정 의 다양한 소식과 각종정보 등을 모바일(핸 드폰, PDA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u-아산 2726' 모바일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모바일 행정 서비스란 핸드폰을 이용하여 시정뉴스, 문화행사 등 아산시와 관련된 모 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이다.

제공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산뉴스, 시 정소식, 문화행사소식, 취업소식, 관광지안 내, 버스노선안내, 아산소개, 행정안내, 통 계자료, 아산날씨정보 등이다. 또한 아산 관광 사진을 다운받아 핸드폰 배경화면으 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용방법은 숫자 2726(영어로 asan)을 누르고 인터넷 접속버튼(nate, magicn, ez-i등)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http://mobile.asan.go.kr> 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온양문화원

문화강좌 신청 및 문의는

☎ 545-2222



아산시 수도권전철개통... '서울에서 신창까지'



수도권전철이 온양온천역, 신창(순천향대)역 까지 12월 15일 개통됐다.

수도권 전철 개통을 축하하는 행사가 15일(월) 아산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주관의 개통식에 이어, 시승식이 있었고, 온양온천역광장에서는 축하행사를 가졌다.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축하행사는 사물놀이 공연, 마칭밴드 공연, 초청 가수 공연, 시립합창단 및 관내 문화공연 등과 시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

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밖에 전철개통일인 12월15일을 전후하여 ▲재래시장 이벤트를 실시하기 위해 재래시장 상인회 등에 할인행사 유도 ▲주요 일반음식점 업주에게는 65세 이상 관광객에 대하여 음식값 20%할인, 주류 무료 제공, 기타 기념품 제공 등의 협조 ▲주요 온천탕 30개소에 대하여는 12월15일부터 31일 까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목욕요금 30% 감면 협조 요청 ▲주요 숙박업주에게는 12월1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숙박할 시 양말 제공 협조 등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전철개통을 맞아, 기동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수많은 온천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탑승인원이 초과될 경우 1개월간 1대를 추가 운행하고, 향후 수요추이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행은 겨울철 특성상 실내관광과 온천테마 위주인 온양온천역(10:00), 온양민속박물관(10:30-11:30), 재래시장(중식, 12:00-13:00), 현대자동차 및 세계꽃식물원(13:30-14:30), 온양온천등 3대온천(15:00-17:30), 온양온천역(18:00)코스로 운행한다.



아산시, 2년 연속 서울대학교 5명 최종 합격

아산시(시장 강희복) 관내 고등학교에서 2009학년도 서울대학교 최종합격자 5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울대학교에 5명이 합격함으로써 아산시 교육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산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나노종합팹센터와 MOU 체결

아산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및 나노종합팹센터와 기술 및 인적, 물적자원을 상호 연계, 공유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원천기술개발 및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시켜 지역 및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2월 12일(금)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은 디스플레이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탕정산업단지와 아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축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을 지향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아산시, 친환경농업대상 지자체부문 수상

아산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서울지역의 초중고교의 영양사를 위하여 서울지역의 초중고교의 영양사 120여명을 초청하여 생산현장을 견학 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처를 발굴하는 등 도농교류를 활성화한 공적을 인정받아 12월 10일 과천 한국마사회 행사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해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고 농가소득을 늘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대초, 한자골든벨을 올리자!



관대초등학교(교장 김현희)는 3-6학년이 참가한 한자 골든벨 대회를 다목적실에서 실시하였다.

한자는 중국 8천년 전 선사시대부터 사용한 상형 문자, 표의문자로 우리나라 말의 70% 이상이 한자로 구성되어, 한자를 많이 알게 되면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1차 관문을 통과한 4명의 학생과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올라온 1명의 학생들이 마지막 금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한 끝에 5학년 최민재 학생이 영예의 금상을 차지하였다.

김현희 교장은 “앞으로 관대초등학교 학생들은 한자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연습하여 국어공부 및 일반적인 상식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주초, 영어와 함께 아침을 열어요



인주초등학교(교장 김종구)에서는 2학기부터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EBS영어 방송을 시청해 오고 있다.

1학기 방학동안 방송설치 작업을 마친 후 2학기 시작과 함께 매일 아침시간을 이용해 영어 환경을 조성하고 영어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아침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각 교실에서 SEL(school english level)

과정을 시청하고 있다.

‘교과서 위주, 교사위주의 영어 교육으로 자칫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쉬운 데 반해 EBS영어 방송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영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복습하거나 연습할 수 있어 영어 실력 향상의 좋은 디딤돌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양초사초, 신입생 유치 홍보 나서

급식비, 현장학습비 전액지원,
증설기여학생 월10만원 장학금 지원



12월 2일(화) 노익선 교장께서 2009학년도 온양초사초등학교 취학 아동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3,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구성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교장께서 2009학년도엔 복식 학급 편성을 지양하고 학급을 증설하고자 온양5동 사무소 회의실(2층)에 관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간담회에서 본교의 교육실태와 특색을 홍보하였다. 전교생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수강 무료, 학습준비물 및 현장학습비의 전액 지원 및 학습 증설에 기여한 학생에게 월 1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등의 혜택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온양초, 아동권리 교육 실시

온양초등학교(교장 이용래)에서는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도 소중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8일, 온주종합복지관의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실시된 아동 권리 교육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영상자료와 스티커 판 등을 이용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권리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둔포초, 주산부, 학부모 공개수업

둔포초등학교(교장 김상열)는 2008년 12월 6일(토) 4교시에 2학년1반 교실에서 주산부의 학부모님 공개 수업이 진행되었다.

학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수준별로 학생을 나눈 후 능력에 맞춘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수업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작은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주판을 만지며 덧셈과 뺄셈을 하였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서툰 동작으로 주판알을 하나하나 움직이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에 부모님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송곡초, 학구내 경로당 방문 봉사활동



송곡초등학교(교장 주동식)는 예절실천봉사단 학생들을 중심으로 재학생이 많이 살고 있는 학구내 경로당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12월 6일(토) 근처 신일아파트 경로당으로 첫번째 봉사활동을 떠났다.

간밤에 내린 눈과 거친 북풍이 차갑게 몰아치는 날이었지만 예절실천 봉사단(4명) 학생들의 열

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신일아파트에 사는 1학년 동생들도 참여하여 할머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봉사단에서 준비한 굴과 인절미를 접시에 곁게 담아 대접해 드리니 어색했던 분위기도 살얼음 녹듯 따뜻해졌으며 학생들이 해드리는 안마를 받으며 어르신들은 밝은 웃음을 지으셨다.



송남초, 도서관 책 축제 시상

송남초등학교(교장 이창복)는 2008년 12월 1일(월요일)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독서신문 만들기 대회에서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을 시상했다.

아산교육청의 '나누는 기쁨, 책 사랑 ABC(Asan book crossing)운동'의 일환으로 저학년 학생들은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고학년 학생들은 독서 신문 만들기 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학급별 도서관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치러진 이번 행사를 통해 강보민(1학년) 외 21명의 학생들이 상을 받게 되었다.

도서관 책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온양동신초, '잔반 없는 날' 우수 학급 시상

온양동신초등학교(교장 김이영)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잔반없는 날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구에서 무작위로 음식을 다 먹은 학생들의 학년 반과 이름을 적어 학급 구성원의 70%이상이 깨끗이 먹은 학급을 선정하고 이어 맛있는 간식을 그 학급에 제공하고 있다. 11월에는 1위(4-1) 2위(6-4) 3위(6-5) 4위(6-1) 5위(3-5)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3학년 5반 학생들은 토요일에 간식을 먹고는 굉장히 좋아했고, 앞으로도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어 1위에 도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모산초, 줄넘기 급수제 실시

모산초등학교(교장 홍순태)는 12월 5일 2학년 전원은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줄넘기 급수제를 실시하였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급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번 줄넘기 급수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체력을 단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끈기가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선장초,

심폐소생술 Anytime교육

선장초등학교(교장 허삼복)에서는 12월 3일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1,000 곳을 선정하여 한 학급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6학년학생을 대상으로 CPR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협회로부터 CPR Anytime이라는 개인 마네킹(개당 3만원 상당)30세트를 지원받아 천안단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CPR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수업 후 설문조사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전파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산署 보듬이회,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



아산경찰서(서장 고훈근)는 연말을 맞아 12월 18일,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28명을 선정, 총840만원의 장학금과 MP3, 학용품등을 전달하고 꿈과 용기를 심어줬다. 지난 2006년 9월 소년소녀가장과 불우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경찰관 14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듬이회를 설립, 4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CDA(아동발달계좌)지원대상 51명을 선정,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왔다.

선도농협 김치가공공장 준공

아산시 대표 농산물 가공식품 회사 중의 하나인 선도농협 김치가공공장이 현대화 시설로 개선되어 12월 14일(금)오전 선장면 선창리 공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김치가공공장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건축 1,653㎡, 기계설비 7종을 새로이 개선하였으며 사업비 12억원이 투입됐다.

선도농협 김치가공공장은 1991년 설립하여 1992년 농림부의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부 2008 사업평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부(지부장 한경수)는 지난 12월 12일 아산웨딩홀에서 2008년도 사업평가회 및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8년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와 우수조직원 표창,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 소감 우수작품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소외이웃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실시

아산농협 따스한 사랑 손길 전해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지부장 이강구)는 12월 21일 지강년 조합장(조합운영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아산관내 전 조합장 및 농가주부모임(회장 신득순)회원 및 (사)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모임(회장 김영애)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농촌사랑예금 기금으로 모아진 성금으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담근 김치 4,000kg(10kg 단위 400box)는 관내조합장, 농촌사랑 봉사단 및 농가주부모임 회원이 각 지역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직접 방문 전달해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성우하이텍 노사문화대상 수상

(주)아산성우하이텍(대표이사 김태일, 노조위원장 임갑병)이 2008년도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에 따르면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한 (주)아산성우하이텍은 1995년 창사이래 단 한명의 인위적 감축을 하지않았고, 2003년 8월부터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등 근로자 고용안정에 노력해 왔다. 2007년에는 노조 임금동결 선언에 회사가 임금인상을 했고 대표이사가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등 노사 상생 경영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모범 기업이다

온양문화원

문화강좌 신청 및 문의는 ☎545-2222

▶ 아산부시장

김용교아산부시장이 2007.12월 부임이래 1년여 근무기간을 끝으로 충남도개발공사로 전보발령되었다. 김부시장은 평소 호탕한 성품으로 직원들과의 유대가 돈독하고 무리없이 행정을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임 정남균 부시장은 공주 탄천 출신으로 충남미래전략사업본부장, 경제통상실장등을 역임했으며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학구파이기도 한 행정가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아산시의 발전에 큰 일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이 서울 순천향대 병원이사장으로 가시게 되면서 순천향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손풍삼(64)교수가 제6대 총장에 선임 오는 2월 24일 11시 취임식을 갖는다. 서교일총장은 2001년 부임이래 8년여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지역의 인재양성은 물론 순천향대학교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신임 손총장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행정조정관실에서 근무했으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 1995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학교에는 2002년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부임해 2005년 대외협력부총장을 맡아왔으며 임기는 2009.3.1~2013.2.28일까지 4년이다.

▶ 아산시자율방법연합대장

아산시 자율방법연합대 제9대 연합대장에 이광현씨(45세)가 취임했다. 이 대장은 1992년 배방방법대에 입대하여 배방대장, 연합대 감사, 연합대 부대장을 역임했다. 이 대장은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회봉사단체가 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대장에는 △ 김태국(역전자율방법대) △백종용(신창읍내자율방법대) 대장이, 감사에는 △황관식(온천자율방법대) △이종인(음봉산동자율방법대) 대장이 선임됐다. 한편 이임한 김도일 대장은 3년 간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관람하도록 질서유지에 앞장서는 등 1천여 대원들과 일체가 되어 자율방법연합대를 뚝심있게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온양역전자율방법대장

김태국온양역전자율방법대장이 자율방법대 연합대 부대장으로 승진하고 윤필원(43)대장이 새로 취임하였다. 김대장은 그동안 역전자율방법대장을 맡아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바가 크다. 윤필원취임대장은 온양역전 자율방법대를 더욱 훌륭한 방법대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 농협중앙회 아산시 지부장

이장구농협중앙회 아산시 지부장이 2008.12월 정년퇴임을 맞았다. 이지부장은 2005.1.21 아산시 지부장으로 취임한 후 4년동안 도내 최장수 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지역 농업, 농촌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후임으로는 우리고장 출신인 박길태(54)지부장이 취임하였다. 박지부장은 우리지역 용화동 출신으로 온천초, 온양중학교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과정을 수료 한 후 농협대교수, 프로젝트 금융실장등 요직을 두루거친 베테랑으로 추진력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장

방인식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장이 2008.12월 정년퇴임을 맞았다. 방 지구대장은 홍성 출신으로 퇴임하기까지 30여년동안 우리지역 경찰행정에 몸담아 지역 주민의 안녕과 경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후임으로는 한만규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이 취임했으며 한 지구대장은 올곧은 성품과 친화력 있는 업무스타일로 우리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협경영인 아산시 연합회장

그동안 아산농협경영인 아산시 연합회장을 맡아 이끌어오던 윤광덕 회장이 이임하고 제 8대 회장에 정재승(48)씨가 취임하였다. 정회장은 아산 인주 출신으로 아농연인주면회장, 홍보분과과장과 사업부회장을 역임하였다.

▶ 해병대 전우회 충남연합회 아산지회장

제11대 문신근(56)해병대전우회 충남 연합회 아산지회장이 이임하고 제12대회장에 강신권(58)신임회장이 취임하였다. 그동안 문신근지회장은 각종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신임 강신권 회장은 지도력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해병대 아산지회 창설멤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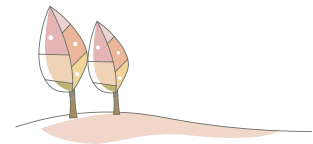
“소감 한마디”

- 이 일 용



먼저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문화는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포함한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삶의 발자취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를 꽃피운 민족은 흥했고 문화가 쇠퇴한 민족은 망했습니다.
문화는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조상들의 문화를 바로 알아야 건전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문화원이 이러한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야 합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이러한 일은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이러한 고유한 우리 지역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51 아산 배방출생
온양읍사무소, 배방면사무소
아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 아산시 기획담당관실
스무살의 초상 시집 발간, 다수의 공저집
비류백제의 기원과 아산, 아산의 역사 집필



아산시 새마을회 제8대회장에 조영구씨 선출

아산시새마을회는 22일 오전 11시 온양5동 소재 사무실 3층 회의실에서 회장선거를 개최했다.
대의원투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총 62명의 대의원 중 5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8명이 기권했다.
결과 현 회장인 조영구 후보가 37표를 획득, 제8대 아산시새마을회장에 선출됐다.
조 회장은 당선인사말을 통해 “있는 성의를 다해 잘하겠다.”며 “삶의 본질과 바탕을 느껴가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화합된 새마을회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마을회 발전은 회원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1945년생
서울균명고등학교졸업
신창면장, 온양온천2동장, 염치읍장역임
현 아산시새마을회장

향우회, 흥겹게 송년회 개최



온화하고 청명한 일기속에 지난 12월 11일(목) 6시 30분에 예년처럼 국방회관에서 2008년도 송년회를 대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예년과는 달리 송년회개막에 앞서 6시 10분경부터 초청한 국악인과 무용단의 창과 화려한 춤사위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대기 시간을 흥겨운 분위기로 전환시켰으며, 막간에 등단한 준가수인 이종혁이사의 열창으로 흥겨운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1부 공식행사에 들어가 개회선언과 간단한

경과보고가 있는 다음 축하패증정, 우승기 수여, 그리고 강희복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중진임원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부행사에 들어가 정담을 나누면서 식사를 끝낸다음 국악인들의 창과 춤으로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각지역 장기자랑을 하였다.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IMF때보다도 더욱 어려움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향우들이 연말의 각종 모임에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름없이 고향모임에 참석해 준 것은, 우리 향우들의 끈끈한 정감과 고향애를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당첨된 경품, 쌀1포대, 배1박스, 그리고 달력1부씩을 가슴에 안고, 새해를 기약하면서 귀가하는 모습은 어느해 보다도 흐뭇해 보였다.



향우회 집행부 보강

향우회는 지난 11월 10일자 12월 26일자로 집행부강화의 일환으로 직분을 조정하거나 신규로 임원을 영입하였다

성명	변경전	변경후
권태석, 송석근	부회장	고문
김준규 김세환, 정종인	지도위원 이사	부회장
맹혁제, 장택현, 최기선	이사	지도위원
김정환, 이상철, 이인규 이종진, 이한윤, 조원준 최종근, 홍미자	회원	이사



선장·염치·온양회장교체

지난 연말 송년회를 전후해서 선장향우회·염치향우회 및 온양향우회의 회장이 교체되었다.

향우회	이임회장	취임회장
선장면	김종규	정종인
염치면	송석근	김세환
온양	권태석	김준규

알림

재경아산온양향우회 소식은 향우회보 제 69호(2009년1월10일)에 실린 내용을 간추려 보도해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지명 유래

‘법곡동(法谷洞)’

법곡동에 얽힌 이야기로 순종대왕의 일이다. 강설봉이라는 정승이 계셨는데 처를 잃어 상중이었다. 그날 마침 궁궐에서 입궐하라는 명을 받아 정승께서는 입궐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입궐은 했으나 상을 당한 터이라 묵묵히 앉아 계셨다. 임금님과 함께 회의하는 중에도 정승은 말 한마디 아니하셨다. 임금님께서 괴이 여겨 그 사연을 물어 본즉 “내상을 입고 입궐한 자가 무슨 말을 하겠사옵니까?” 정승이 대답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시길 “그럼 장례는 치루었는가?” 정승은 “장례는 무엇입니까? 신위주도 안잡아 났습니다”. 임금 왈 온양골에 내려가면 내가 신위주를 잡아 놓은 데가 있노라 그곳에 가서 상을 치러라 하시며 친히 하사하셨다. 정승께서 온양에 내려와 관가에 이 이야기를 하니 원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떻게 믿느냐고 하니 정승께서는 임금님께 내리신 하사장을 제시했다. 친필로 신위주를 준 것을 확인하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묘자리를 잡았다. 묘는 강경묘라 하는데 이 뜻은 강씨 정경부인의 묘이다. 그래서 법곡동에는 능묘가 있어 능미라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능미 보다는 법곡동이라고 불리며, 뒷동산에 이방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방들이 살던 곳이라 하여 유래 되었다고 한다.

현재사진법곡동(法谷洞)은 본래 온양군 읍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능미, 가무일부를 병합하여 법곡리라 하여 아산군 온양면(읍)에 편입 되었다가 1986년 온양시로 승격됨에 따라 법곡동이 되었다.

법곡 1통은 마을입구 강청묘 산에 정경부인 묘소가 있었으며 지금도 그 말이 유래되어 능미라고 칭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부지이다.

2통은 마을 모양이 전봇대와 같다하여 전주고개로 불린다. 능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법곡동의 옛모습〉



〈법곡동의 현재 모습〉



아산 지역의 연예활동 시초
천낙관과 온양극장

우리 고장에서 전문적 연예활동이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는
똑바로 살펴볼 길이 없으나 옛날 고대사회에서 여러 집단
적인 행사나 제 또는 나쁜 신을 막기 위한 굿을 할 때 노래와 춤
이 어울려서 연예활동의 시초를 이루었고 이것이 개화되어 연예
활동으로 된 것이라고 보면 우리 고장에서 연예활동의 시초도 그
시기부터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고장에서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기
록 한다면 아무래도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형태를 가
지고 기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온양지방에 대중 연예활동의 전당이며 제공처의 역할을
해온 상설 극장으로 문을 처음으로 연 곳은 천낙관 이었다.

1926년 온양에서 처음으로 생긴 천낙관은 그 시설만 해도 다른
도시에서는 이러한 상설극장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극장
이라야 지붕과 사면의 벽이 모두가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설
극장과 비슷했지만 당시로서는 이 고장에 있어 유일무이한 문화
의 전당으로서 끼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경남철도 (현재의 장항선) 사
회의 부사장 아끼모도(추본)가 그 당시의 명소인 신정관(현재 온
양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서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 천낙
관에서는 주로 요양소에 있는 일본 군인들의 위안 공연장으로 쓰
여 졌고, 가끔 영화나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극장에
서 상영되던 무성영화에 관객들은 흥분되기가 일쑤였고 장화 흥
련전등의 연극을 관람하면서 수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연
극에 도취되는 등 실로 당시로서는 크나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이 극장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장난기 많은 청소년들이 심
술궂게 돌을 던지는 통에 연극이나 영화가 상영 내지 공연될 때
면 온통 소란스런 소리가 나서 잠시 중단되기도 하는 등 지금 생
각하면 상상도 못할 상황들이었다. 그러나 이 천낙관이 생김으로

써 이 고장의 대중문화를 전파하고 마음의 안식처로 기여한 영향은 컸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본인들의 차별이 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자극 하였던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책에서 나온 근성은 이 극장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도 열외는 아니었다. 이 극장의 운영권은 물론 모든 지휘 감독체계도 일본인들이 도맡아 하였다.

차별대우의 한 가지는 실례(實例)를 든다면 동 극장의 앞자리와 관람하기 좋은 자리들은 모두 일본인들의 전용 좌석으로 그들만이 이용하게 하였으며, 뒷좌석과 입석 등에 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지가 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기도 했다.

이 극장에서 연극이나 영화가 공연케 되면 이 프로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내 일원을 악대가 돌아다니며 광고를 했다. 그리고 연극이나 영화 상영이 없을 때에는 갖가지 문예활동도 심심치 않게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미 고인이 된 홍남표가 당시의 빅타 레코드에 취입까지 한 실력 있는 노래 솜씨 때문에, 그리고 일본 동경 음악학교에서 전공한 바이올린 솜씨가 뛰어난 이유로 유석환들이 가끔 당시의 일본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한 공연에 초청되어 우리말 노래와 애환이 깃든 옛 노래들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여 아낌없는 절찬의 박수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아리랑, 검사와 여선생 등의 영화와 연극이 공연되어 관객들의 심금을 뒤흔들었던 것도 이 무렵이었는데 이토록 갖가지 화제거리가 얹히고 설킨 이 천낙관이 원인모를 화재가 나서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아 버리게 되자 그나마 굶주린 오락이나 공연의 충족을 이루어 왔던 주민들의 실망은 컸었다. 그러나 1년 남짓 후쯤 천안에도 상설극장이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 온양에다 상당한 거액을 들여 비록 200여 석 밖에 안되었지만 목재 건조의 2층 건물로서 상설극장을 건립하게 되니 이것이 온양 지방에는 천낙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긴 극장이 된 것이다. 이 상설극장의 명칭은 온양극장이라고 붙여졌다. 이 때부터 다시 연예활동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충남 도내에는 대전을 빼고는 이러한 훌륭한 극장시설이 없었다. 이렇게 온양극장이 새로 등장하게 되자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영화와 기단 공연이 주기적으로 공연케 되었으며 청춘파, 호화선, OK악극단등 국내 일류급 흥행 단체들이 몰려 공연이 본격화되기 시작 하였는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한국 극단에서 일본어를 구사하며 연극을 공연하는 것은 참으로 역겨운 일들이 아닐 수 없었다.

8.15광복과 더불어 온양극장의 운영 상황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 하였다. 8.15광복을 경축하는 갖가지 대중 집회가 이곳 온양극장에서 연일 계속 되다시피 하였는데 당시 온양지방의 유일무이한 대중 집회소로서 불비던 이곳 온양극장에서 좌익분자들이 재빨리 시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이어서 우익 진영인 독립 축성회가 이곳 온양극장에서 결성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흥행물이 등장될 리가 없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어서 극장관람에 굶주린 당시의 주민들에게는 펍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무렵 당시 우익 진영단체인 독립 축성회의 청년에서 소인극그룹을 창립하였다. 이 소인극 그룹에서는 애국심과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연극을 시도하여 이주진, 허정, 엄석창, 강근식등 10여명이 모여 안중근의사, 김상옥열사 등의 애국심을 소재로 한 소인극들을 공연하여 미흡한 내용



▲온양극장이 있던 건물(우측)

과 연기지만 많은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었다

강근식의 각본과 장식, 분장등으로 이루어진 소인극 안중근 의사 등이 공연될 때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너무 억눌려 살아왔던 터이겠지만, 그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소인극이 무대에서 공연되는 도중 관객들은 관람석에서 연극에 도취되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어서는 관객들이 있는가 하면 심한 관객은 무대 위로 뛰어올라 일본 경찰로 분장하고 연기하는 한국인 연

기자의 먹살을 잡고 두들겨 패는 진풍경도 많았었다. 이 무렵 소인극의 인기도 대단했지만 노래 콩쿠르 대회도 소인극 못지않은 대단한 인기를 차지하였다.

물론 일제 침략하에서 마음 놓고 우리의 노래를 불러보지 못한 한도 있었겠지만 노래 콩쿠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입추의 여지없이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었다. 이러한 당시의 온양극장의 운영은 전에 일제하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의 손에 의해 자치 운영되었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그저 알뜰한 봉사였었다. 그러다가 온양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자 주둔하는 미군들의 위안 공연을 위해 간간이 온양극장이 이들에게 빌려 지기도 했었다. 미군들은 당시의 온양극장 무대를 사용할 때마다 무대 바닥을 새로 깔고 또 조명시설도 특별하게 갖추어 놓고 공연을 하였다. 그 덕분에 온양 극장은 이 무렵 항상 깨끗한 시설을 유지 할 수가 있었다.

경영주가 없는 온양극장이 대중 집회소로 또는 흥행장으로 요긴하게 이용되어 오다가 6·25 동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이 온양 극장은 폭격에 잿더미가 되었다.

이리하여 천낙관 시설부터 온양극장이 있기까지 10여 년 동안 화제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 일대는 명물로서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후 9·28 수복과 더불어 차츰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극장 시설의 필요성이 차츰 커지기 시작 하였다. 이 무렵에 이동 흥행장 (당시 가설극장)이 등장하여 사방을 광목 천으로 치고 노천에서 16mm영화를 상영하였고 당시의 충남차부 (현재 금강여관 신관자리)의 차고에서 툼툼이 영화를 상영한바 있었다. 이 당시의 시네마 온양이란 것이 생겨 (지금의 용화동방면 굴다리 옆 24시 편의점 뒤 창고) 제법 본격적인 흥행장 구실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동방회관의 건립으로 16mm 영화상영과 당시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국악단의 무대 공연이 이루어져 온 바가 있다.

〈온양아산마을사〉

사진으로 다시보는

문화학교 전시 _ 2008. 12. 10(수)~12(금)

아산시청 1층 로비

“처음으로 열린 회원작품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도및 생활예절반 | 도자기반 | 천연생활염색반 | 짚풀공예반 | 서예,사군자반 |
칠보공예반 | 북아트반 | 도자기반 | 선물포장반 | 전통매듭반 | 밥로스반 | 한국화반 |

다도 및 생활예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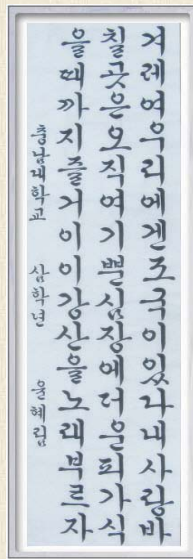
천연생활염색



칠보공예반



서예사군자반



한국화반



짚풀공예



도자기반



북아트반



선물포장반



전통매듭반



밥로스반





듣고 보고 만지는 재미가 솔~솔~~

온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온양문화원에서 **진행중인 강좌** 및 신설강좌 수강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아산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취미, 여가활동으로 자기계발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산 시민의 문화마인드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강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강좌 (해당 강사와 상의하여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과 목	요일 / 시간	인원	강사	교 육 내 용
도자기 · 야생화	월/ 10:00~12:00	15	윤상신	흙을 이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며, 야생화도 함께...천연생활염색
천연생활염색	월 /10:00~13:00(초급) 금 / 10:00~13:00(중급)	15	이미선	염료와 직물을 사용하여 스카프, 넥타이, 손가방 등 나만의 색 만들기
선물포장	월 / 14:00~16:00	15	전정숙	독창적인 포장기법을 배우고 포장에 이용하는 리본장식품 만들기
밥로스	월 / 16:00~18:00 목 / 16:00~18:00	15	김미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환상적인 덧칠 기법으로 풍경 그리기
서예 · 사군자	월 / 18:30~20:30 목 / 18:30~20:30	15	홍승예	한글, 한문의 기초와 사군자 그리기
다도및생활예절 (사범자격증반)	화 / 10:00~12:00(고급) 화 / 13:00~15:00(초급)	15	김공녀	차를 끓이고 마시며 대접하는데 따르는 정성과 예의 범절 배우기
전통매듭	화 / 10:00~13:00	15	김남희	각종 매듭 기법을 배우고 목걸이, 귀걸이, 핸드폰 줄 등 장신구 만들기
생활영어	수 / 15:30~17:30	20	박기란	실 생활에 필요한 대화 중심의 기초영어 말하기
한국화	화 / 09:30~11:30	15	박순래	우리 민족의 특성과 민족적 의식을 내포한 우리 그림 그리기
칠보공예	목 / 10:00~12:00	15	이미선	금속 표면에 다양한 색상의 유약을 입혀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을 만들기
LEX(렉스)	목 / 19:00~21:00	30	이은숙	온 가족이 함께 다 언어(7개 국어) 환경에서 언어CD를 듣고 말하기
디지털 카메라	토 / 10:00~12:00	15	김대열	디카, 동영상 촬영기술 및 편집방법 배우기(ucc)
이주여성다문화	금 / 10:00~	20	장미숙	한국어 배우기 및 한국문화 체험



모집중인 강좌 (교육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과 목	요일 / 시간	인원	강사	교 육 내 용
규방공예(퀼트)	월 / 14:00~10	10	조희경	한국전통수공예. 보자기와 매듭 전통문양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주부 시 낭송	월 / 19:00~10	10	장미숙	시를 목소리에 실어 독창적인 해석과 가락을 배우는 과정
예쁜 손글씨 (POP)	목 / 14:00~	20	미 정	다양한 글씨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활용법 익히기
천연비누/화장품	금 / 10:00~	20	미 정	가족의 건강체질을 위한 천연비누와 천연재료를 이용한 천연화장품 만들기
북 아트 (2급 자격증 반)	토 / 10:00~	20	박미영	미니 북에서 열쇠고리까지 창의력을 쏙쏙 올려주는 나만의 책 만들기
한지공예	목 / 10:00~	20	최희선	한지와 틀을 이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 소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어 교실	수 / 10:00~	20	미 정	일본어 기초
중국어 교실	금 / 10:00~	20	미 정	중국어 교실
생활한자	목 / 10:00~	20	미 정	실생활에 사용하는 한자를 중심으로 학습

교육기간

과목별 3개월 ~ 6개월 과정

교육장소

온양문화원

접수방법

온양문화원 전화 신청 및 방문 접수

연회비 및 수강료

- 연회비 : 1년에 한번 20,000원 납부(1회 한함)
- 수강료 : 각 과목별 월 10,000원(3개월 선납 원칙)

회원 가입시 혜택

-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문화탐방**, **산우회**에 참석 (회비 별도)
- 분기마다 발행하는 문화원 소식지 "**아산타이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민속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 장애인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해 드립니다.(증명서 제출시)

기타사항

- 수강료 환불은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합니다.
- 수강료 외에 각 과목별 재료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문 의

온양문화원 ☎041-545-2222 / Fax 041-542-4444

이메일 : onyangcc2@hanmail.net

홈페이지: www.onyang.cukt21.or.kr





신 간

외암유고 국역발간

『역주, 외암 이간의 철학과 삶』

아산의 역사적 인물인 외암(巍巖) 이간(李柬) 선생(1677-1727)의 외암유고가 국역으로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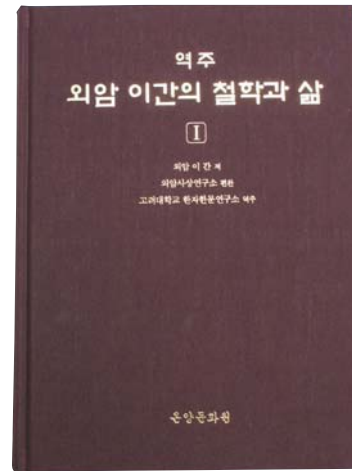
외암사상연구소(소장 이원직 순천향대 명예교수)에 의해 외암의 둘째아들 인계 이이병이 1760년 목판으로 간행한 16권8책을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와 국역 및 출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3년여에 걸쳐 외암의 철학과 문학, 자연, 생명의식 등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원문에 충실한 교열, 주석, 교점을 가하는 역주작업을 완료하여 발간했다.

이간 선생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서 태어나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수암 권상하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정맥을 계승한 성리학자로 조선후기 성리학계의 인간 심성론을 둘러싼 일대 학술논쟁인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낙론(洛論)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이원직 외암사상연구소장은 “역주 외암 이간의 철학과 삶의 발간으로 외암의 성리사상을 일반대중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역사학, 문학, 자연과 생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연구여건을 개선해 주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주, 외암 이간의 철학과 삶』은 총4책 4×6배판 2천100여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온양문화원 사무국(041-545-22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양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회원자격

☞ 온양문화원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에 오셔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회원회비 : 연 회비 20,000원(계좌송금 또는 직납)

☞ 회비납입계좌 : 농협 465-01-199416(예금주: 온양문화원)

☞ 문의전화: 041-545-2222, 548-8488

※온양문화원은 공익을 위한 특수법인 단체이므로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 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 분기별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아산타이딩(소식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각종 문화축제와 워크숍 등 문화원 관련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 문화학교 강좌 및 문화유적 탐방, 산행(산우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양문화원

충남 아산시 온천동 206-24번지 전화: (041)545-2222
www.onyang.cult21.or.kr

